

光日春秋

백홍열



2009년은 인간이 달에 첫발을 내디딘 지 40년이 되는 해이자 갈릴레오가 처음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주로 대한민국 미래 쏘아 올리자

기술을 세계에 과시하고 국내 우주산업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우주는 먼저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선진국들의 우주경쟁을 구경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도 2009년은 우주로 도약하는 아주 특별한 해이다. 현재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KSLV-I 우주로켓 발사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2001년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까지는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다면, 21세기에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주로 도약하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 새로운 부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우주시장의 규모는 1천억불로 연 10% 이상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측면에서도 기상에

압둘 칼람 대통령이 2007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주개발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다.

역사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외형적 힘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신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피와 땀으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비록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단합하고 도전한다면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만 있다면, 21세기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피와 땀으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비록 지금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잠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다시 단합하고 도전한다면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만 있다면, 21세기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최영욱



넓은 기개가 자주 고장 나듯 나이가 들수록 치아나 잇몸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가 빠지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소화를 도와주는 타액의 분비도 감소해 소화 장애가 생긴다.

일반 보철물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중요시되면서 임플란트 치아를 보존하기 원하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

임플란트의 올바른 이해

주, 보존치료의 의료 보험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임플란트가 치료비용의 전부이며 영구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되듯이 권장되고 있는 시점에 임플란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림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90% 이상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설, 불법선거 장으로 악용 말아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날과 대보름이 다가오고 있다. 새로움을 담고 있는 설날과 풍요의 상징인 대보름의 의미가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는 선거의 의미와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혼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거법은 수용보호시설과 같은 불우시설에 의원급급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범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선물·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자신을 지지호소·선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고

황영국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도입 이래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되었고,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 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사회보험체도로 평가 받고 있다.

덴, 이태리, 캐나다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8년 초 화제가 됐던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소재로 한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 2억 9천명에 해당하는 전체 인구의 16%인 4천 5백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1년에 평균 1천5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미래는 희망이다

서비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보험(NHI)방식은 의료비를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의식에 의한 국민의 정부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보험료를 주로 부담하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GDP대비 5.9%로 OECD평균 9.0%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고, 보험료를 또한 5.08%로 사회보험(NHI)방식을 택하고 있는 프랑스 13.55%, 독일 14.2%, 일본 8.5%와 비교하여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극 동참하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나 많은 실정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며 건강에 대한 관심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값고루 영양을 섭취하다 보니 자연히 버리는 음식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고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주방들이 장을 볼 때 필요한 품목과 양만 구입하고 요리할 때 다 가져들이 먹을 분량만큼만 가져, 재료를 손질할 때 곱질은 얇게 하고 못쓰는 부분을 자를 때 가능한 작게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본다.

시설

지역 법률·의료시장 공동화 우려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광주지역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도 대다수 합격자가 수도권 등 타지역 출신이라고 한다.

이는 가뜰이나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많은 지방 의료인이 수도권으로 이탈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고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의학과 대학원 합격자 분포를 보면 조선대의 경우 합격자 125명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87명이 수도권 출신이다.

게다가 이번 의학전문대학원의 타 지역 출신 점령은 수도권 인재들이 장악한 로스쿨과 맞물려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한다. 올해 전남대 로스쿨도 합격자의 67%가 수도권 출신이었다.

이웃사랑·노사협력으로 경제난 극복하자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모두가 불황에 허덕이면서도 광주·전남의 이웃사랑 온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불황 파고를 넘기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다. 위기의식을 공유한 노사가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펼쳐고 있는 ‘2009 희망나눔캠페인’에는 19일 현재 광주는 16억8천여만원, 전남은 42억4천여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지금 지역경제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기 침체는 기초체력이 허약한 지역경제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금호타이어, 기아차 광주공장, 보해양조 등 지역 대기업의 노사는 임금 삭감 및 동결 그리고 연월차 휴가 반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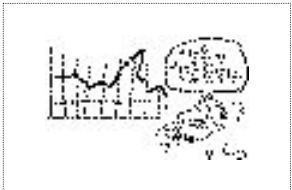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의 이웃사랑과 노사협력 운동 확산도 면면이 이어 온 지역의 잠재력에서 나온 것이다.

無等鼓

다윈의 진화론은 1858년 발표된 후 수십 년간 보수진영의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과학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인류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면 ‘시장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다우지수 30종목 중 100년 넘게 생존한 기업은 오직 GE밖에 없으면서, 변화 속에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 다윈주의



진화론의 요체는 ‘자연선택’이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만이 자손을 많이 남기고 생존경쟁에 유리한 변이나 유전자를 보존해 세대를 이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금융시장은 어떤가. 현재 금융권의 화두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 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엄터리일이 관명됐다. 자금 여유가 있는 모 그룹이 외면하는 기업은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1년 넘게 금융지원 없이 자구 노력을 해온 생존력 있는 기업엔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성장동력 창출 대신 정부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선택 메커니즘을 주식투자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강으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일에 힘을 허비할 셈이다. 부담은 결국 금융권이 안게 되고, 시장선택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밖에 없다. M&A 같은 자체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토기 사냥이 끝난 후의 사냥개처럼. /김주정 경제부장 jknews@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